

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형태의 표현유형에 따른 어린이의 반응 연구

children's response according to the expressive method of the form which is expressed on
the picture book Illustration.

주저자 : 유동관 (Yoo Dong-Kwan)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전공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형태의 지각
- 2-2. 형태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 2-3. 형태의 표현형식

3. 실증조사 및 분석

- 3-1. 조사 내용 및 방법
- 3-2. 1차 반응조사
- 3-3. 2차 반응조사
- 3-4. 분석결과

4. 결론

참고문헌

(要約)

화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조형요소 중에서 형태는 그려지고 표현된 모양에 따라 어린이의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야기내용에 따른 주제와 배경의 관계,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 등을 전달하는 시각적 진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화면에 표현된 형태가 시각적, 심리적으로 어린이에게 어떻게 작용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형태에 대한 어린이의 지각발달과 지각경험이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어린이의 독창성과 창의성 발달, 시각적, 심리적 사고발달, 그리고 꿈과 상상력 자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형태의 표현형식을 재현적 형태표현, 단순화된 형태표현, 과장된 형태표현, 왜곡된 형태표현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1, 2차에 걸쳐 진행되는 설문자료로 활용하여 어린이의 표현 형태별 유형에 따른 반응과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어린이의 반응분석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개성과 창의성이 바탕이 된 형태표현에 도움이 되는 물론,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우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표현방법 연구와 실험에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mong many modelling factors which consist of a screen, a form brings a child's psychological response, according to its being drawn and expressed shape, and would be defined as a visual descriptive method which transmits the rel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background by a story content and the circumstance and emotion of characters in the story.

In this study, to analyze how an expressed form on a screen works to a child visually and psychologically, I, first have examined how differently a child's perception development and its experience to the form is come out by the age of a child, and have found that it influences on a child's originality and creativity development, visual and psychological thinking development, and the stimulation on dream and imagination. And I have examined each characteristic by discriminating the expressive style of the form into a reproductive, a simplified, an exaggerated and a distorted form expression, and by utilizing it as substantiative data through the 1st and 2nd stage, have analyzed responses and preferences according to a style of a child's expression form.

In conclusion, I have considered that the analysis result through the substantiative study would be a help not only to the form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an illustrator's personality and creativity, and also would be utilized in the effective expression method study and experiment of students who learns the illustration.

(Keyword)

children's response, expressive method, form, picture book screen

1. 서론

1-1. 연구목적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이르는 어린이의 자아개념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을 수 있는 자연적 환경과 다양한 형태의 인쇄매체를 통한 인공적 환경을 통해 형성되며 성장해감에 따라 점차 확대, 개발된다.

어린이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중에서 인공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그림책은 그림책 속에 전개되는 이야기내용 및 여러 가지 조형요소들을 통해서 어린이의 지적호기심과 창의력개발은 물론, 심미안을 길러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어린이그림책에서 여러 가지 조형요소들의 관계구조 및 크기, 모양, 움직임 등으로 등장인물이나 주인공의 성격과 특성, 감정 등을 직접 전달하는 형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표현방법과 능력에 따라, 이야기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적용되며, 그 효과 또한, 그림책을 보는 어린이에게 그림책 속에 묘사된 인물이나 대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는 모방행동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그림책화면에 표현된 형태표현에 관한 연구는 어린이의 인지 발달과 시지각 특성을 바탕으로 그림책의 표현방법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법에 따른 유아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김수정, 1998」, 의인화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어린이의 기호도와 의인화 대상에 대한 소재별 기호도를 설문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의인화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향을 제시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법 중 의인화에 관한 연구, 나미경, 1995」 등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화면 속에 표현된 형태의 표현형식에 따른 어린이의 선호도 및 반응을 1, 2차에 걸친 실증조사를 통해 연구·분석하고, 도출된 결과는 그림책화면에서 형태표현에 대한 올바른 적용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그림책화면에 나타나는 형태의 다양한 표현형식이 어린이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심리적 반응, 정서와 감정, 지적 상상력과 예술성, 심미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인 면에서나 예술적인 면에서 어린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형태의 시각적, 심리적 지각효과를 연구·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현형식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형태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나타내는 선호도와 반응을 관찰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어린이의 미적 감각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형태의 올바른 적용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끝으로 결론을 통해 제시된 형태의 적용방식이 그림책화면에서 등장하는 인물 및 주인공의 모양과 성격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야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됨은 물론,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그림책화면에 표현된 형태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표현형식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형태에 대한 어린이의 시각적, 심리적 반응을 분석

하기에 앞서 첫째, 형태에 대한 어린이의 시각적, 심리적 지각능력 및 특성과, 둘째, 형태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및 표현형식 등을 살펴보고, 셋째, 1, 2차 걸쳐 연구자가 제시한 설문자료를 통해 어린이의 반응을 실증조사 하여, 넷째, 실증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길러주고 정서와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형태의 올바른 적용방향을 결론을 통해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은 어린이로 하여금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유추하기 위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직접 응답을 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서베이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연구설계는 분석적 서베이(analytical survey)와 종단서베이(longitudinal survey)방법¹⁾을 적용하여 어린이의 선호이유를 파악하고 1, 2차에 걸친 실증조사를 통해 어린이의 심리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설문내용은 4가지 유형으로 표현된 화면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어린이의 선호도와 선호이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의견 질문 형식과 어린이가 질문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진술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범위는 어린이그림책을 보는 2세에서 7세까지의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어린이 중에서 언어의 발달과 행동의 사회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그림책화면에 표현된 형태가 전달하는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5세에서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증조사 한다.

끝으로 어린이그림책화면에 표현된 형태를 제작함에 있어 일러스트레이터의 아이디어 및 컨셉의 발상과 시각적 구체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다양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린이의 시각적, 심리적 감성정도를 제공해주는 어린이그림책화면제작의 올바른 표현방향을 제안하는데 의미를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형태의 지각

형태는 시각, 촉각 등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적 성질로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생김새, 또는 외형과 형상으로 형(型)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성질을 말한다.²⁾

어린이가 지각하는 형태는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데, 부피가 큰 물체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안정감이나 거북스러움, 어색함을 느낄 수 있고, 곡선의 섬세한 모양들은 움직임, 우아함,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둥그란 모양은 부드럽고 아늑하며 따뜻한 느낌을 이끌어내고, 사각형이나 삼각형은 타원이나 부드러운 모양에 비해 딱딱하고 날카로우며 흥분하기 쉬운 반응을 일으킨다.³⁾

어린이의 시 지각은 유기체와 환경이 눈을 통해 접촉하는 첫

1) 김영석, 사회조사방법론, 나남출판, 159, (2005).

2) 4세에서 7세까지를 로웬펠트(V. Lowenfeld)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형태를 묘사하는 시기이며, 김정은 그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최고조로 달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김정: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111-125, (1989).

송명자 저: 발달심리학, 학지사, 104-105, (2004).

3)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23, (1991).

4) 김현희, 박상희 공저: 유아문학교육, 학지사, 117, (1999).

단계이며, 수동적 감각기관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활용되는데, 전조작기 어린이의 시각적, 심리적 지각특성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는 직관적으로 지각한다.

어린이는 사물에 대해 직관적으로 전체를 지각할 뿐 세부적으로 정밀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즉 사물의 미세한 세부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어린이는 대상은 지각하되 그 구조만을 지각한다.

이는 자극이 뇌의 시각적 부위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구조적 단순화 경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사람은 머리와 몸통, 사지로 지각되고 나무는 나뭇잎으로 된 둥근 원형과 나무둥치로 지각된다.

이러한 대상의 외형적 특성을 어린이는 감각적 수준으로 표현하고 어른은 대상의 본질을 숙고하고 탐구하며, 재구성하여 표현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개념적 지각은 어린이가 성장해 가면서 분화되고 복잡해진다.

셋째, 어린이는 부분적, 정감적, 주관적으로 지각한다. 이는 어린이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않고 자기의 정서적 상태나 주관에 의해 파악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는 성장해가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새로운 사물에 대해 사고하고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림책을 통한 시각적, 심리적 지각경험 또한, 무의식중에 어린이에게 미적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런 경험이 자주 일어나면 그것은 심미안과 예술성을 형성시켜주는 표준이 된다.

따라서 그림책화면에 표현된 형태는 이야기내용과 형식에 따라 사실적으로 표현되거나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 즉 중요한 부분을 확대, 과장, 왜곡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축소, 생략하여 표현함으로써 어린이에게 그림책이 전달하는 정보를 정확히 이해함은 물론, 꿈과 상상력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2-2. 형태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어린이그림책에 표현된 등장인물이나 주인공의 모습과 성격은 단순한 지식이나 의미전달, 감정의 호소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 즉,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이야기가 전달하는 분위기 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그림책 속에 표현된 형태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독창성과 창의성발달

피아제(Piaget)는 4~5세부터 현실적인 감각이나 조건이 생기기 시작하여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져 표상의 범위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상상력과 사고력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⁶⁾

이시기에 어린이들은 그림책화면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그림을 구성하고 표현할 때에는 상상력과 창조성을 띠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표상된 심상들은 아직도 실재의 단순한 복사에 지니지 않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다 사회적 경험이 늘어나고, 또래 아이들과의 놀이를 통

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개발되어 어린이들의 정신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어린이그림책화면에서 어린이의 표상을 넓혀주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확장시켜주는 형태의 표현방법은 쉽지 않다. 형태표현의 독창성은 대상의 실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내면세계 즉, 대상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책화면에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형태표현과 동작의 연출 등은 등장인물, 또는 주인공에 대한 어린이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독창성이 배제된 형태표현은 단지 개성이 없는 단순한 일러스트레이션에 불과하다.

2-2-2. 시각적, 심리적 사고발달

어린이그림책에 표현된 형태가 어린이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형태자체가 어린이의 시선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매력이란 어린이가 형태에 대해 정서적으로 얼마만큼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은 즐거움, 애교, 귀여움, 온화함, 놀라움, 두려움, 착함, 등과 같은 어린이의 정서와 감정에 관계되는 시각적 표상의 “끌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각적 표상물(pictorial representation)이란 그림, 만화, TV, 영화 등에서 볼 수 있는 표상을 재현시켜 놓은 상징적 대상을 뜻하는데, 2세경부터 어린이들은 동화책 속의 등장인물이나 TV만화 속에 나오는 여러 대상의 모습을 대단히 흥미롭게 지켜본다. 또한 이들은 그림책이나 만화 속의 인물과 실제 인물의 사소한 차이를 이해하며 실제모습과 다른 형태로 표현되면 그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⁷⁾

어린이는 연령이 올라가면서 복잡한 자극을 좋아하게 되고 시각적인 탐색능력이 체계적으로 발달한다. 즉 4~5세가 되면 외부운곽에 대한 탐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며, 6~7세가 되어야 내부운곽도 탐색하면서 체계적으로 외부운곽을 탐색하게 된다.⁸⁾ 대상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속성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여러 대상을 동시에 통합 할 수 있는 전조작기 어린이의 시각적, 심리적 지각발달은 여러 인지적 조작능력이나 지적과제 해결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2-3. 꿈과 상상력 자극

형태간의 비현실적 접합과 구성, 꿈의 세계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예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상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형태는 어린이에게 신비감을 전달한다. 메이(May)는 “어린이는 환상이 그들의 일상적인 사회 문제를 푸는 것을 도와준다고 기대하지 않으나 환상이 그들의 영혼 깊숙이까지 감동을 주기 때문에 환상을 읽고 즐긴다.”고 하였다.⁹⁾ 즉 어린이는 환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제시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가 환상그림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야기내용에 알맞은 환상적 표현이 터무니없고 기발하거나 단순히 재미있기

7) 송명자 저: 발달심리학, 학지사, 123, (2004).

8) 김현희, 박상희 공저: 유아문학교육, 학지사, 40, (1999).
송명자 저: 발달심리학, 학지사, 87, (2004).

9) 한국 어린이문학 교육 연구회: 환상그림책으로의 여행, 다음세대, 23-24, (1999).

5) 서봉연, 이순형, 발달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293-299, (2001).

6) 이현섭, 김상윤, 추정선, 조선희 공저: 아동발달심리, 278, (1999).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표현요소들이 어린이의 물활론적 사고에 부합하기 때문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쉽다.

따라서 그림책에 표현된 형태가 전달하는 환상성은 어린이에게 신비감을 전달함은 물론, 인공물이나 자연물과 같은 대상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어린이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시켜 즐거운 환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수단이며, 예기치 않은 개체들의 결합, 주관적 원근법, 움직임의 반복, 크기의 변화, 모순된 상황 설정 및 의인화된 표현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2-3. 형태의 표현형식

그림책화면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표현방법과 표현능력에 따라, 어린이그림책관련 저자의 기술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¹⁰⁾ 본 연구에서는 제 3장의 실증조사를 통한 어린이의 반응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사실적 형태, 단순화된 형태, 과장된 형태, 기형화된 형태로 구분하며, 루돌프 아르하임의 시지각 이론을 참고로 하였다.¹¹⁾

2-3-1. 재현적 형태표현

대상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현하고, 직접적인 느낌이 전달되도록 표현하는 형식을 말한다. 재현적 표현은 어린이들에게 자연관찰적 태도를 지니게 해주며 사물의 개념형성에 도움을 주고,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는 즉시 이해되는 구체성을 가진다.

표현된 조형요소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그림책은 주로 어린이의 실제 삶의 모습과 주변 생활경험을 소재로 사실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전개해가거나 표현대상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한 지식정보전달에 적합하다. 이야기의 구성 또한,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신비하고 마술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으며, 사실적인 전개과정으로 진행된다.

2-3-2. 단순화된 형태표현

주제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 표현하여 대상의 본질을 부각시키는 표현방법인 단순화된 형태표현은 사실적이고 구조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대상의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단순화시킴으로써 본질적 특성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단순화된 형태표현은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단순하고 기하학적 형태와 불규칙적인 형태, 그리고 혼합적 형태로 나누어지며, 각 형태는 제각기 다른 시지각 효과를 가지고 있다. 표현방법에 따라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유머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유발시키며 비현실적 분위기를 전달한다.

등장인물을 단순화하여 표현할 때는 나이, 성별, 인종, 성격, 감정, 건강상태, 시대적 배경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인물이 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표현대상을 너무 많이 생략하면 대상이 지닌 특성과 성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

에 표현대상의 고유성을 침범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2-3-3. 과장된 형태표현

과장된 형태표현은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연장이나 단축, 면적의 수축이나 확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법을 의미하며, 일러스트레이터는 과장된 형태표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간단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다.

표현대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극단적으로 생략하거나 강조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과감하게 변형하는 과장된 표현은 형체뿐 아니라 행동과 색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변요소와 배경에서도 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과장된 형태표현은 그림책을 보는 어린이의 감정상태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개인적, 연령적,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3-4. 왜곡된 표현

일반적인 의미로 단순화되거나 과장된 표현도 왜곡된 형태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서 왜곡은 대상이 비합리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왜곡된 형태표현은 주로 특정부분의 생략,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특정형태의 위치나 방향의 전환, 부분과 부분의 모순된 결합, 또는 형태의 속성을 변화시켜 표현할 수 있다. 즉 인체의 표현에 있어 눈을 하나만 그린다면지 입을 두개로 표현하는 방법, 얼굴대신 인체의 다른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 인체가 엇가락처럼 흐느적거리게 표현하는 방법 등은 모두 왜곡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그림책에서 왜곡된 형태표현은 기괴한 형태를 한 대상이 될 수 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표현이 될 수 있다.

3. 실증조사 및 분석

3-1. 조사내용

3-1-1. 조사목적 및 방법

1, 2차에 걸친 어린이의 반응조사는 15명 내외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1차 실증자료는 주제가 단순명료하게 제시된 화면을 활용하고, 각각의 표현형식에 대한 어린이의 직접적인 반응을 분석하였다. 제시된 화면은 4가지의 유형 즉, 인물과 동, 식물, 그리고 기물을 표현한 형태를 활용하였으며, 표현형식은 재현적 표현, 단순화된 표현, 과장된 표현, 왜곡된 표현으로 구분하고, 이중 좋아하는 화면을 선택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묻고 답하도록 하였다.

2차 실증조사에서는 국내·외에 출판된 어린이그림책 중에서 형태표현이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화면을 활용하였으며, 1차 반응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화면에서 표현기법과 색채표현, 화면구도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형태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만을 유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그림책이 전달하는 이야기내용과 분위기, 정서와 감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형태표현의 올바른 적용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3-1-2.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유치원 어린이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대상연령은 전조작기 어린이 중에서 본 설문

10) 유희관 지음: 그림보고 그림읽기, 미진사, 68-72, (2005).

김이산 지음: 똑, 똑, 똑 그림책, 현암사, 100-112, (2004).

11) 루돌프 아르하임 지음, 김춘일 옮김: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2003).

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5~7세 어린이로 제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4월 19일부터 6월 17일 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표1] 연령분포 및 성별분포(대상자 수 310명)

구분	남			여		
	5세	6세	7세	5세	6세	7세
대상자수	18	70	93	12	59	58
(%)	(5.8%)	(22.6%)	(30%)	(3.8%)	(19%)	(18.8%)
계	181(58%)			129(42%)		

3-1-3. 분석기준

1, 2차에 걸쳐 진행되는 실증조사를 통해 어린이의 정확한 반응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선호하는 형태는 무엇인가.

둘째, 주제가 간단명료하게 표현된 1차 실증자료와 글과 그림, 또는 주제와 부 주제가 함께 표현된 그림책화면을 통한 2차 실증자료에서 어린이의 반응은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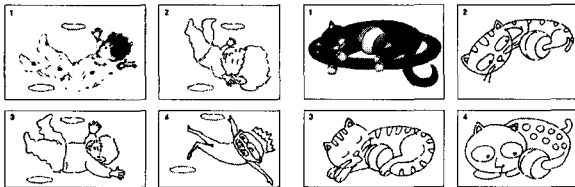
셋째, 형태표현과 더불어 의인화된 형태가 삽입된 실증자료에서 어린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2. 1차 반응조사

3-2-1. 인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

인물표현에 대한 반응조사는 아래로 떨어지는 어린이모습이 표현된 화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 및 선호이유를 분석하였다.

[표2] 인물, 동물 형태표현에 대한 설문자료



[표3] 인물 형태표현에 대한 분석표

구분	인물표현에 대한 분석표				
	내용	화면1	화면2	화면3	화면4
대응 자수 (%)	5세	10(33%)	9(30%)	7(23%)	4(13%)
	6세	36(28%)	30(23%)	21(16%)	42(33%)
	7세	19(12%)	25(17%)	33(22%)	74(49%)
	계	65(21%)	64(20.5%)	61(19.5%)	120(39%)
총계	총 310명(남:181, 여:129)				

인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는 (표3) 인물 형태표현에 대한 분석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왜곡된 형태표현의 제 4화면(39%), 재현적 형태표현의 제 1화면(21%), 과장된 형태의 제 2화면(20.5%), 마지막으로 단순화된 형태의 제 3화면(1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왜곡된 형태표현에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선호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5세 어린이는 과장된 형태가 표현된 제 2화면(30%)과 재현적 형태가 표현된 제 1화면(33%), 단순화된 형태의 제 3화면(23%)에 호감을 보였고, 6세 어린이는 제 4화면(33%), 제 1화면(28%), 제 2화면(23%) 순으로 나타났으며, 7세 어린이는 왜곡된 형태인 제 4화면(49%)에 큰 흥미와 관심을 보였는데, 왜곡된 형태표현에 대한

경우, 어린이의 선호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형태별 어린이의 선호이유를 살펴보면 제 1화면에서 어린이들은 “행복한 얼굴이 예뻐요.” 또는 “날아다니셔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 2화면과 제 3화면에서 또한 “날아다니셔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일부의 어린이가 과장된 형태표현인 제 2화면을 보고 “머리가 커서 재미있어요.”라고 답하였다.

왜곡된 형태가 표현된 제 4화면에서 5세 어린이들은 “무섭게 생겼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6세와 7세 어린이들은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머리카락이 뽀족하게 생겼어요.” “머리가 날아가요. 이빨이 삐뚤뽀뚤해요.” “바보 같아요.” 등 다양한 표현과 반응을 보였다.

3-2-2. 동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

동물표현에 대한 반응조사는 공을 갖고 있는 고양이모습이 표현된 화면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 및 선호이유를 분석하였다.

[표4] 동물 형태표현에 대한 분석표

구분	동물표현에 대한 분석표				
	내용	화면1	화면2	화면3	화면4
대응 자수 (%)	5세	13(43%)	10(33%)	5(16%)	2(7%)
	6세	40(31%)	32(24%)	17(13%)	40(31%)
	7세	25(17%)	14(9%)	50(33%)	62(41%)
	계	78(30.5%)	56(22%)	72(22%)	104(26%)
총계	총 310명(남:181, 여: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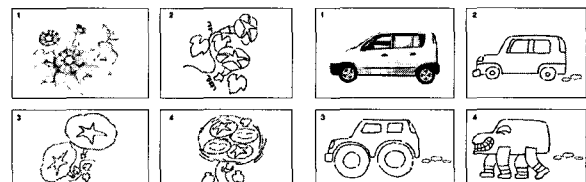
(표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전체적인 선호도는 특정표현형식을 선호하지 않고 고른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냈으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어린이는 재현적 형태인 제 1화면(43%), 과장된 형태의 제 2화면(33%), 단순화된 형태의 제 3화면(16%)순으로 호감을 보였고, 6세 어린이는 제 1화면과 제 4화면(31%), 제 2화면(24%)순으로 나타났으며, 7세 어린이는 왜곡된 형태가 표현된 제 4화면(41%)에 큰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형태별 어린이의 선호이유를 살펴보면 제 1화면에서 어린이들은 “공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귀여워요.” 또는 “자는 모습이 귀여워요.”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제 2화면에서 6, 7세 어린이들은 “눈이 옆으로 비뚤어져 재미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단순화된 형태표현인 제 3화면에서는 “귀엽게 잠을 자요.”라고 질문내용에 답하였으며, 제 4화면에서는 “눈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무늬가 둥그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커서 돼지 같아요.” “괴물 같아요.” 등 6, 7세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과 응답이 나왔다.

3-2-3. 식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

식물표현에 대한 반응조사는 나팔꽃을 활용하였다. 특히 왜곡된 형태의 제 4화면은 의인화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표5] 식물, 기물 형태표현에 대한 설문자료



[표6] 식물 형태표현에 대한 분석표

구분		식물표현에 대한 분석표			
대응 자수 (%)	내용	화면1	화면2	화면3	화면4
	5세	9(30%)	5(16%)	7(23%)	9(30%)
	6세	49(38%)	17(13%)	18(14%)	45(35%)
	7세	53(35%)	9(6%)	19(13%)	70(46%)
계		111(36%)	31(10%)	44(14%)	124(40%)
총계		총 310명(남:181, 여:129)			

(표6) 식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어린이는 재현적 형태의 제 1화면과 왜곡되고 의인화된 제 4화면(30%), 과장된 형태표현의 제 3화면(23%), 단순화된 형태표현의 제 2화면(16%)순으로 호감을 보였고, 6세 어린이는 제 1화면(38%), 제 4화면(35%)으로 단순화된 형태와 과장된 형태의 제 2화면과 제 3화면에 비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7세 어린이 또한 제 4화면(46%)과 제 1화면(35%)에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형태별 어린이의 선호이유를 살펴보면 제 1화면과 제 2화면에서 어린이들은 “꽃 모양이 예뻐요.” 또는 “꽃 속에 별 모양이 있어요.”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제 3화면에서 6, 7세 어린이들은 “꽃이 엄청나게 커요.” “나팔꽃 안에 별이 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왜곡된 형태표현인 제 4화면에서 어린이들은 “꽃이 웃어요.” “얼굴 같아요.” “나팔꽃이 모여 나무가 되었어요.” “꽃이 빙글빙글 돌아요.” 등 주제와 연상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담하였다.

3-2-4. 기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

기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조사는 자동차에 대한 네 가지의 표현형식을 제시하였으며, 왜곡된 형태는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표7] 기물 형태표현에 대한 분석표

구분		기물표현에 대한 분석표			
대응 자수 (%)	내용	화면1	화면2	화면3	화면4
	5세	10(33%)	6(20%)	5(16%)	9(30%)
	6세	47(36%)	23(18%)	14(11%)	45(35%)
	7세	35(23%)	13(8.5%)	13(8.5%)	90(60%)
계		92(31%)	42(15.5%)	32(12%)	144(41.5%)
총계		총 310명(남:181, 여:129)			

기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는 (표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왜곡된 형태가 표현된 제 4화면(41.5%)과 재현적 형태표현인 제 1화면(31%)이 단순화된 형태표현인 제 2화면(15.5%)과 과장된 형태표현의 제 3화면(12%)에 비해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어린이는 제 1화면(33%), 제 4화면(30%), 제 2화면(20%)순으로 호감을 보였고, 6세 어린이는 제 1화면(36%), 제 4화면(35%), 제 2화면(18%) 순으로 나타났으며, 7세 어린이는 제 4화면(60%)에 큰 호기심과 관심을 보였다. 특히 왜곡된 형태와 더불어 의인화된 모습으로 표현된 제 4화면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형태별 어린이의 선호이유를 살펴보면 제 1화면과 제 2화면에서 어린이들은 “진짜 차 같아요.”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으며, 제 3화면에서는 “바퀴가 커요.”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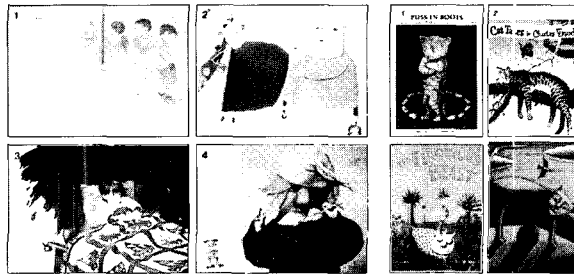
제 4화면에서 어린이들은 “자동차에 발이 있어요.” “자동차가 웃고 있어요.” “로봇 같아요.” “자동차가 걸어가요.”라고 대답하여 의인화된 표현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에 다양한 반응과 관심을 보였으며, 그 중에 “문이 없어요.”라고 대답한 어린이도 있었다.

3-3. 2차 반응조사

3-3-1. 인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

인물표현에 대한 반응조사는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 화면을 제시하여 어린이의 선호도 및 선호이유를 분석하였다.

[표8] 인물, 동물 형태표현에 대한 설문자료



[표9] 인물 형태표현에 대한 분석표

구분		인물표현에 대한 분석표			
대응 자수 (%)	내용	화면1	화면2	화면3	화면4
	5세	9(30%)	9(30%)	5(16%)	7(23%)
	6세	49(38%)	21(16%)	29(22%)	30(23%)
	7세	13(9%)	42(27.5%)	42(27.5%)	54(36%)
계		71(26%)	72(24%)	76(22%)	91(27%)
총계		총 310명(남:181, 여:129)			

(표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어린이는 재현적 형태의 제 3화면(16%)에 비해 단순화된 형태의 제 1화면(30%)과 과장된 형태의 제 2화면(30%), 그리고 왜곡된 형태의 제 4화면(23%)을 고루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세 어린이는 제 1화면(38%)을 제 4화면(23%)과 제 3화면(22%), 제 2화면(16%)에 비해 다소 높은 관심을 보이고, 7세 어린이의 선호도는 제 4화면(36%)이 제 2화면과 제 1화면(27.5%)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연령에 따라 다소 선호하는 형태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형태별 어린이의 선호이유를 살펴보면 제 1화면에서 어린이들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어요.” “뛰어다녀서요.”라고 대답하여 인물의 움직임이나 주변상황에 관심을 나타냈다. 제 2화면에서는 “몸이 뚱뚱해요.” “얼굴이 네모예요.” “사람머리에 선풍기처럼 날개가 있어요.” “다리에 시계가 달려있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제 3화면에서는 “자는 모습이 귀여워요.”라고 대답하였다.

제 4화면에서 어린이들은 “도깨비 같아요.” “허수아비 같아요.” “나뭇잎을 머리에 묶어서 재미있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나뭇잎을 먹고 있어요.” 등 주제를 구성하는 이미지에 연관된 표현을 중심으로 다양한 답변과 호기심을 나타내었다.

3-3-2. 동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

동물표현에 대한 반응조사는 어린이에게 친근한 동물인 고양이

이모습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장된 형태표현의 제 1화면에서는 의인화된 형태로 표현된 화면을 제시하여 어린이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제 4화면은 단순화되고 과장된 형태로 표현된 화면을 활용하였다.

[표10] 동물 형태표현에 대한 분석표

구분	동물표현에 대한 분석표				
	내용	화면1	화면2	화면3	화면4
대응 자수 (%)	5세	10(33%)	6(20%)	10(33%)	4(13%)
	6세	42(33%)	24(19%)	26(20%)	37(28%)
	7세	53(35%)	18(12%)	43(29%)	37(24%)
	계	105(34%)	48(17%)	79(27%)	78(22%)
총계	총 310명(남:181, 여:129)				

(표10)동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는 의인화되고 과장된 형태의 제 1화면(34%), 왜곡된 형태의 제 3화면(27%), 단순, 과장된 형태의 제 4화면(22%), 사실적으로 재현된 제 2화면(1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어린이는 제 1화면(33%)과 제 3화면(33%)에 다소 높은 호감을 보였고, 6세 어린이는 제 1화면(33%), 제 4화면(28%), 제 3화면(20%)순으로 나타났으며, 7세 어린이는 제 1화면(35%), 제 3화면(29%), 제 4화면(24%)순으로 실제 형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한 제 2화면(12%)에 비해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였다.

동물표현에서 나타나는 형태별 어린이의 선호이유를 살펴보면 제 1화면에서 어린이들은 “고양이가 신발을 신고 서있어요.” “눈이 너무 커요.” “고양이가 팔짱을 끼고 있어요.”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웃기게 생겼어요.” 등의 외형적 모습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과 반응을 나타냈으며, 제 2화면에서는 “나무위에서 자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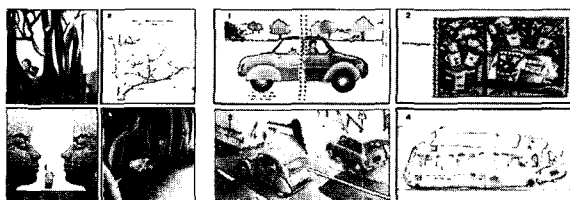
제 3화면에서는 “무서워요.” “뿔이 있어서 코뿔소처럼 생겼어요.” “몸에 둥그라미가 있어요.” “황소 같아요.”라는 다양한 답변과 함께 고양이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다른 이미지를 이야기한 어린이들이 많았다.

제 4화면에서 어린이들은 “고양이 다리가 길고 키가 커요.” “고양이가 집보다 커요.” “터널 같이 몸을 구부렸어요.” “얼굴이 빼빼고 수염이 길어요.” “집보다 커서 이상해요.” 등 다양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7세 어린이들은 주변요소의 크기와 비교해서 응답하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3-3-3. 식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

식물표현에 대한 반응조사는 나무를 제시하여 어린이의 선호도 및 선호이유를 분석하였다. 왜곡된 형태의 제 3화면과 과장된 형태의 제 4화면에서는 의인화된 모습이 삽입된 화면을 제시하여 어린이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표11] 식물, 기물 형태표현에 대한 설문자료



[표12] 식물 형태표현에 대한 분석표

구분	식물표현에 대한 분석표				
	내용	화면1	화면2	화면3	화면4
대응 자수 (%)	5세	11(36%)	2(7%)	9(30%)	8(27%)
	6세	22(17%)	10(8%)	48(37%)	49(38%)
	7세	22(14.5%)	10(6.5%)	69(45.5%)	50(33%)
	계	55(22.5%)	22(7.2%)	126(37.5%)	107(32.8%)
총계	총 310명(남:181, 여:129)				

식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는 (표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의인화된 모습과 더불어 왜곡된 형태로 표현된 제 3화면(37.5%), 과장된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묘사된 제 4화면(32.8%), 단순화된 형태의 제 1화면(22.5%), 사실적 표현의 제 2화면(7.2%) 순으로 왜곡된 형태표현인 제 3화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어린이는 제 1화면(36%)과 제 3화면(30%), 제 4화면(27%)이 재현적 형태가 표현된 제 2화면(7%)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6세 어린이는 왜곡된 형태와 더불어 의인화된 표현이 삽입된 제 3화면(37%)과 제 4화면(38%)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세 어린이 또한 제 3화면(45.5%)과 제 4화면(33%)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물표현에서 나타나는 형태별 어린이의 선호이유를 살펴보면 제 1화면에서 주로 5세 어린이들은 “생쥐가 귀여워요. 생쥐가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등 질문과는 관련 없는 표현요소에 관심을 보였으며, 제 2화면에서는 “나무가 진짜 같아요.” 라고 대답하였으나 대다수 어린이들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제 3화면에서 어린이들은 “나무가 얼굴이에요.” “나무가 화난 것 같아요.” “얼굴모양나무에 뺨이 있어요.” “이상하고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림이 예뻐요.” 등의 다양한 답변과 나무의 표현에서 연상되는 사람을 이야기한 어린이들이 많았다. 제 4화면에서는 “나무에 눈이 있어서 유령 같아요.” “나무가 움직여서 귀신같아요.” 등을 대답하였으나 이외에도 “도깨비가 자고 있어요. 동물들이 많아요.” 등 질문과 관련 없는 주변요소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어린이가 있었다.

3-3-4. 기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

기물표현에 대한 반응조사는 자동차가 묘사된 화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 및 선호이유를 분석하였다. 특히 과장된 형태표현의 제 4화면에서는 크기의 변화를 두어 제시하고, 왜곡된 형태의 제 2화면에서는 의인화하여 어린이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표13] 기물 형태표현에 대한 분석표

구분	기물표현에 대한 분석표				
	내용	화면1	화면2	화면3	화면4
대응 자수 (%)	5세	9(30%)	8(27%)	3(10%)	10(33%)
	6세	20(16%)	52(40%)	19(15%)	38(29%)
	7세	21(14%)	54(36%)	20(13%)	56(37%)
	계	50(20%)	114(34%)	42(12%)	104(33%)
총계	총 310명(남:181, 여:129)				

기물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는 (표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왜곡되고 의인화된 형태표현의 제 2화면(34%)과 과장된 형태로 표현된 제 4화면(33%)이 단순화된 형태표현의 제 1화면(20%)과 재현적 형태표현의 제 3화면(1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어린이는 제 4화면(33%), 제 1화면(30%), 제 2화면(27%)이 제 3화면(10%)에 비해 다소 높은 호감을 보였고, 6세 어린이는 왜곡되고 의인화된 형태의 제 2화면(40%)이 제 4화면(29%), 제 1화면(16%), 제 3화면(15%)에 비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7세 어린이는 제 4화면(37%)과 제 2화면(36%)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각 형태별 어린이의 선호이유를 살펴보면 제 1화면과 제 3화면에서 어린이들은 “자동차가 굴러가요.” “자동차가 많아요.” 등을 답하였다. 제 2화면에서는 “자동차에 이빨이 있고, 웃고 있어요.” “괴물 쓰레기통처럼 생겼어요.” “자동차가 괴물 같아요.” “장난감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자동차에 무언가 나올 것 같아요.” 등 의인화된 모습에 대한 다양한 대답과 호기심을 보였다.

과장된 형태로 표현된 제 4화면에서 어린이들은 “자동차가 기차 같아 재미있어요.” “자동차는 긴데 바퀴가 너무 작아 웃겨요.” “바퀴가 작은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탔어요.” 등의 다양한 대답을 하는 가운데, 긴 자동차에 비해 작은 바퀴가 너무 재미있다고 대답한 어린이들이 많았다.

3-4. 분석결과

3-4-1. 1차 반응 조사 분석결과

5세 어린이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현된 재현적 형태 및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를 선호하고, 6세 어린이는 재현된 형태와 더불어 왜곡된 형태를 선호하였다. 7세 어린이는 왜곡된 형태에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 반응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사실의 재현보다는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의 시각적, 심리적 지각세계가 더욱 풍성하게 발달함에 따라 대상을 재구성하여 표현한 이미지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재현적 형태와 단순, 과장된 형태의 비교, 분석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표현방법의 특징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경우 선호하는 형태표현은 재현적 표현에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현대상의 세부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친근한 형태를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식물과 기물형태표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현적 형태표현과 의인화된 모습의 왜곡된 형태표현을 비교, 분석하면 5, 6세 어린이는 재현적 형태와 의인화되고 왜곡된 형태를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7세 어린이는 왜곡된 형태와 더불어 의인화된 표현에 강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인화된 형태표현은 어린이의 지각경험이 많아지면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함은 물론, 자신의 주관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불활론적 사고에 부합되는 요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3-4-2. 2차 반응 조사 분석결과

5세 어린이는 단순화된 형태표현이나 과장, 왜곡된 형태를 선호하며, 6세 어린이는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를 선호하였다. 7세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1차 반응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2차 반응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1차 실증조사와는 달리

2차 반응조사에서는 화면전체에 묘사된 상황이나 주된 요소의 움직임, 주제 및 부 주제, 주제와 배경의 관계구조 등 세밀한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어린이의 반응은 다소 느리게 나타났다.

둘째, 인물과 동물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형태표현은 어린이가 다양한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요소로서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표현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왜곡된 표현에서 지나친 변형은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의 본질을 지각하되 그 구조만을 지각하며, 대상의 본질을 왜곡하여 재구성한 이미지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인물과 동물, 기물의 과장된 형태표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제와 부 주제, 주제와 배경의 크기변화는 어린이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야기 시키는 표현방법이 되었다.

특히 주된 요소가 상대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느낌을 전달하여 “무섭다.” “이상하다.” 등 직관적 사고에 익숙한 5, 6세 어린이의 다양한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다.

3-4-3. 종합 분석결과

1, 2차에 걸친 어린이의 반응결과를 종합하여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반응분석에서 5, 6세 어린이들은 재현적 형태표현과 의인화되고 왜곡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반응에서는 재현적 표현보다는 단순, 과장, 왜곡된 형태와 의인화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1, 2차 반응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제 및 표현요소가 단순명료하게 제시된 1차 실증자료에서 5, 6세 어린이들은 주변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형태에 시선이 먼저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형태표현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재현적 형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제와 부 주제, 주제와 배경으로 구성된 그림책화면을 통한 2차 반응에서 5, 6세 어린이들은 1차 반응에서와 달리 사실의 재현된 형태표현보다는 단순화된 형태 및 과장, 왜곡된 형태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주인공 및 등장요소의 표현 형식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처한 상황, 주변요소와의 관계구조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표현된 재현적 형태보다는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 지적호기심을 자극하는 형태에 시선이 집중되고, 결국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 2차 실증자료에 삽입된 의인화된 형태표현은 5, 6, 7세 어린이 모두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7세 어린이는 1, 2차 반응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와 더불어 의인화된 표현이 삽입된 화면의 경우 높은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

4. 결론

그림책화면에 표현된 형태를 통한 어린이의 시각적, 심리적 인지효과는 한 화면에서 보여 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시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인식하는 것이다. 즉 화면위에 표현된 형태의 특성과 양식은 어린이에게 그림책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고 흥미와 감동, 지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데, 1, 2차에 걸친 어린이의 반응결과를 바탕으로 형태표현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내용 및 소재에 적합한 표현형식 이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변형된 형태표현과 재현적 형태표현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구별하고, 이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변형된 형태표현이 어린이에게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표현요소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게하며,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현적 형태표현에서는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표현된 형태가 지닌 상황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려는 개인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현된 형태는 어린이에게 익숙한 일상적 경험이야기나 자연현상, 또는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에 적합한 표현방법이 되는 반면,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는 어린이에게 보이지 않는 환상의 세계 즉,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소재 및 내용에 적합한 표현형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와 더불어 의인화된 표현은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지적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표현방법이 된다.

어린이들은 의인화된 모습에서 자신을 동일화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투영하려고 한다. 이는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 동물이나 식물, 또는 무생물의 움직임이나 표정에서 강한 지적 호기심과 더불어 현실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상상의 세계로 쉽게 진입하려고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어린이가 생각하는 세계는 어른의 세계와는 다르다. 특히 취학 전 전조작기 어린이의 사고는 그들이 생각하는 틀에 맞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원한다. 사람과 동물 외에 나무나 물 등의 무생물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모든 대상에 생명과 감정이 있다고 보며, 대화를 나누고 소원을 빌고 감정을 공유하는 몰입론적 사고를 지닌 어린이에게 의인화된 형태표현은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적인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제와 부 주제, 주제와 배경의 관계구도를 고려한 형태표현 이어야 한다. 간단명료하게 제작된 1차 실증조사에서 어린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2차 실증조사에서는 어린이의 선호 또는 반응이 느리게 나타났다. 이는 1차 실증자료에서 제시된 표현형태의 움직임이나 모양, 표정 등이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표현된 반면에, 2차 실증자료에서는 그림책화면에 표현된 여러 가지 조형요소의 결합에 따른 주제와 부 주제, 주제와 배경의 관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자세는 어린이가 그림책을 볼 때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표현요소들의 관계구조나 화면전체를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주인공이 처해진 상황이나 움직임, 얼굴표정 등을 연관지어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책에 표현된 주된 요소의 표현방법뿐만 아니라 화면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설정과 이야기내용에 알맞은 형태표현 및 주제와 부 주제, 주제와 배경 등을 고려한 형태개발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형태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2차 어린이의 반응결과를 분석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표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왜곡된 형태표현은 나이가 많은 어린이일수록 높은 관심과 흥

미를 나타냈는데, 이는 표현대상의 이질적 결합 또는 속성변화가 어린이의 지적 관심과 사고의 폭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차 반응분석의 인물과 동물형태표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태의 지나친 왜곡은 형태의 본질을 지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전달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미적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꿈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형태표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야기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형태표현에 대한 기획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제한점으로는 첫째, 1, 2차에 거친 실증조사는 연구자가 제시한 화면을 보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나타내는 반응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같은 화면을 지속해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못하였다.

둘째, 15명 내외의 소모임에서 자료를 보여주고 어린이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어린이 개인의 성향과 반응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미흡하였다.

셋째, 1, 2차 실증조사는 제시된 화면에 따른 어린이의 반응을 살펴보았으나 어린이들이 그림책 한권을 읽고 보면서 나타나는 반응은 다루어 보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는 첫째, 어린이들이 같은 화면을 반복해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어린이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둘째, 집단조사에서 도출된 반응분석결과와 개별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동일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표현형식이 나타나는 그림책한권을 읽고 보았을 때 어린이의 반응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분석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제시한 1, 2차 실증자료에 제한하여 화면에 표현된 형태들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분석과 지각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그림책제작에 있어 형태표현에 대한 어린이의 시각적, 심리적 지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시함은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화면을 통한 심미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기초 자료로서 일러스트레이터 및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 김영석 저, 사회조사방법론, 나남출판, 2005
- 김정 저,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1898
- 송명자 저, 발달심리학, 학지사, 2004
- 김현희 박상희 공저, 유아문학교육, 학지사, 1999
- 유동관 지음, 그림보고 그림읽기, 미진사, 2005
- 김이산 지음, 똑, 똑, 똑 그림책, 현암사, 2004
- 이현섭 김상운 추정선 조선희 공저, 아동발달심리, 학지사, 1999
- 한국 어린이문학 교육 연구회, 환상그림책으로의 여행, 다 음세대, 1999
- 서봉연, 이순형, 발달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2001
-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1
- 루돌프 아르하임 지음, 김춘일 옮김, 미술과 시지각, 미진 사, 2003.